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224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8)
'오름왕국'에서 '골프왕국'으로

입력 : 2004. 12.17. 00:00:00

북돌아진오름·괴오름



▲서부관광도로 너머로 바라다 본 북돌아진오름./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지난 11일, 초겨울이지만 초가을 못지 않은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말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뒤로 하고 호명목장을 가로질러 북돌아진오름을 향했다. 북돌아진오름은 애월읍 봉성리 서부관광도로변의 들불축제장으로 유명한 새별오름 남쪽에 있다. 남쪽에서 봤을 때 오름 정상 두 봉우리가 장고(북)형상을 하고 있어 북이 달려있다는 뜻의 제주어 표현인 북돌아진오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절묘한 형상과 절묘한 표현의 절묘한 만남이다.

오름 중턱은 쥐똥나무와 떼죽나무가 잎을 떨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만으로도 울창함을 자랑하고 비자나무도 간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북가시와 참가시, 생달나무 등 상록수와 산딸나무, 때죽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숲이다. 오랜 세월 이 지대는 마소들을 위한 방목장 또는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면서 나무들이 자라기 어려운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입이 금지되고 마소들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급속히 숲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북가시오름은 식물상 연구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강영제 위원(식물·난대산림연구소)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북가시나무를 보면 과거에는 해발 700m 지대까지도 난대림지대였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 지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자나무들은 구좌읍 비자림 못지 않게 한때는 울창한 비자나무숲이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오름남쪽 능선에는 간간이 철모르게 꽃을 피운 산철쭉도 보인다. 진달래와 산철쭉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주도 오름 정상에 있는 것은 대부분 산철쭉이라고 한다.

정상에 오르니 예가 바로 한라대맥임을 입증하듯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북돌아진오름까지 오름군락이 고도를 따라 내려오며 거대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오름의 장관을 또 여기서 만난다. 경관을 감상하던 시선들은 곧 오름 주변 곳곳에 조성된 골프장으로 옮겨졌다.

산업도로를 지날 때는 골프장 입구만 보이니 각 골프장이 제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지만

오름에 올라보니 3개의 대형골프장이 오름을 돌아가며 뿔뿔히 조성돼 있음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오름 중턱을 깎아내고 그린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하천(금성천)을 잠식한 듯한 골프장도 보인다. 오름산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서남북 모두 골프장 그린으로 포위돼 있다. 제주도가 바다 속의 섬이라면 이곳 오름들은 골프장 그린에 갇힌 섬인 것이다.

오름은 주변의 곳자왈과 하천, 초원지대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법이다. 오름은 오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자원이 함께 보존돼야 오름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한 탐사였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돌아진오름을 내려와 괴오름으로 올랐다. 고양이 모양으로 생겨서 이를 뜻하는 제주방언인 괴(고양이)오름이라 이름붙였다. 북돌아진오름과 붙어 있어 하나의 오름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오름의 식생은 북돌아진오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상에 오르니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골프장들이 눈에 거슬린다.

도내 골프장들은 앞을 지나는 도민들에게 그 입구만 보여줘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또 오름을 오르는 오르미들에게는 잘 정돈된 그린으로 시야를 가려 그 밑의 모래사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계 단절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보려면 도내 환경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치열한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허가한 골프장까지 합치면 제주도에는 모두 40개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도내 임야면적 915.4km²의 4.8%인 43.9km²를 차지한다. 북돌아진오름 근처의 골프장들은 모두 수십만평 규모의 대형골프장들로 적게는 50실에서 많게는 130여실까지 갖춘 숙박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골프관광객 유치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려 곳곳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골프장건설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국내 골프관광객은 대부분 ‘단일 목적형 관광’이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돼 골프장 내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즉, 골프장은 지역공동체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개발이익의 역외유출만 가속될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산간 곳곳에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곳 북돌아진오름과 괴오름 주변에는 이미 세개의 골프장이 들어선 데 이어 새로운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오름왕국이 어느덧 골프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북돌아진오름의 식생

서부관광도로에서 도로 동, 서편으로 오름의 외관은 크게 바뀐다. 관광도로 동쪽에 위치한 오

름들은 울창한 수목으로 이루어지고, 관광도로 서쪽 오름들은 대부분 지금도 초원 오름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외양은 제주도의 목축산업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만 해도 한라산과 주변 오름들은 대부분 목장지나 화전을 일구는 데 사용되어 나무들은 불을 피할 수 있는 계곡주변, 정상, 암벽지대 등에만 부분적으로 분포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방 후 강력한 산림보호와 산지녹화정책, 제주도에 대한 목축 장려가 맞물리면서 해발 600m 이상의 오름들은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을 형성하고, 그 이하의 오름들은 목장으로 사용되어 초원오름으로 경관을 유지하여 온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나무들의 높이, 가슴둘레가 적은 때죽나무, 산딸나무,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또한 초원 오름들도 목축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지금은 짚레, 산딸기류, 쥐똥나무, 상산 등 키가 작은 호광성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몇십년 후에는 숲을 이룰 것이라고 추측된다.

제주도 식생을 해발고도에 따른 분류를 하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닷가에서부터 해발 약 600m~800m까지를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등 잎이 넓고 사철 푸른 나무들로 구성된 난대상록활엽수림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록수림대는 특히 한라산 남쪽 계곡을 중심으로 원형이 간직되고 있어 수악계곡, 돈내코계곡, 선돌주변으로 가면 과거 제주도 상록수림의 원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지막한 오름과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제주도 동사면, 서사면은 개간이나 목축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땀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라산 남쪽과 같은 상록수림이 형성될 수 없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동쪽의 선흘곶, 동백동산, 서쪽의 금산공원, 북제주군 한경면과 남제주군 서광리일대의 청수곶, 서광곶 및 산방산 등에서 과거의 식생 흔적을 유추할 따름이다.

이러한 울창한 숲의 증거로 40대 후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마루, 침방마루'란 건축물의 일부와 '남방애'같은 생활용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무더운 여름날 할아버지 집의 마루에 누우면 마루널 한 장에 몸을 눕힐 수 있는데 그 나무가 주로 붉가시나무로 만든 것으로 시골에 주택개량사업이 한창일 때 해체되어진 마루 널은 미술이나 조각재의 소재로 팔려 나갔다. 또한 필자의 기억에 아주 어린 시절 사촌형제들과 함께 '남방애'에 올라가 놀던 기억이 있다.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서너명이 올라 앉을 수 있는 나무의 소재는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니다. 주로 제주어로 '굴목이'라고 불리는 느티나무가 주로 사용되어진 이 남방애의 소재로 쓰여진 나무들이 과거 제주도의 울창하고 잘 자란 밀림의 흔적을 말하여 주며, 미래에 제주오름에서 이러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는가는 제주가 표방하는 청정하고 푸른 생태도시로서의 환경자원조성과 연결지어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식생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